

구본창 개인전 <Koo Bohnchang> 개최

January, 2019 | 백지홍 편집장

구본창 개인전 《Koo Bohnchang》 개최

구본창 작가의 개인전 《Koo Bohnchang》(2018.12.14~2019.2.17)이 2018년 8월 F1963 내에 개관한 국제갤러리 부산점의 첫 번째 기획전으로 개최되었다. F1963은 부산 수영구의 고려제강 공장을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2016년 《부산비엔날레》 전시장으로 사용되면서 개관했다. 2011년 전시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구본창 작가의 이번 개인전은 첫 전시 이래 작가의 대표작으로 부상한 〈백자〉 연작 11점을 비롯해 2014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이번 전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청화백자〉 연작 11점, 대형 〈제기〉, 〈연적〉 등 총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의 이름을 전시명으로 내세운 만큼 지난 30여 년간 작가가 만들어온 독창적인 작품 세계가 아우르는 주제와 최근 경향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이 갤러리의 설명이다. 구본창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청화백자〉 작업을 지속하여 〈백자〉 연작처럼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청화백자의 다양한 무늬를 보여주고, 인류 문명이 보편적으로 귀하게 여긴 황금의 매력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GOLD〉 연작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구상을 밝혔다.



구본창 작가 ©백지홍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20주년 기념전 《프리퀴 PREQUEL 1999-2018》 개최



《프리퀴 PREQUEL 1999-2018》 전시 전경, 이미지 제공: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실験적인 예술을 발굴하고 지원해온 비영리 전시공간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이하 사루비아다방)에서 개관 20주년을 맞아 기획전 《프리퀴 PREQUEL 1999-2018》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년 동안 사루비아다방에서 진행해온 전시를 매개로 작가와 기획자 그리고 관람자가 전시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 제목에 해당하는 '프리퀴'은 영화에서 본편보다 과거의 이야기를 다룬 속편을 뜻하는 말이다. 이러한 개념에 착안하여 사루비아다방은 전시를 선보이기 이전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했다. 작가와 기획자가 작품을 공간에 설치하여 선보이는 결과가 전시라면, 《프리퀴 PREQUEL 1999-2018》은 전시를 준비하기 이전에 선행되는 수많은 과정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고민이나 서로 다른 관점들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사루비아다방에서 이루어진 107건의 전시와 134명의 작가들이 전시에 쏟은 열정과 경험을 전시와 자료집을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

한편, 작가가 중심이 되는 비영리 전시공간이라는 사루비아다방의 독특한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작가, 기획자, 관람자로 분류된 세 화자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내용을 전시에서 살필 수 있다. 또한 사전 설문은 통해 작가, 기획자, 관람자 총 129명의 답변을 모두 수합했으며 전시 기간 중에도 세 화자가 질문과 답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